

문 대통령, “모처럼 독서 즐겨보시길”

여름철 탐독한 ‘코로나 사피엔스’ · ‘오늘부터의 세계’
‘리더라면 정조처럼’ · ‘홍범도 평전’ 등 책 4권 추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여름철 탐독한 ‘코로나 사피엔스’, ‘오늘부터의 세계’, ‘리더라면 정조처럼’, ‘홍범도 평전’ 등 책 4권을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 방역 협조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모처럼 독서를 즐겨 보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위 책들을 소개했다. 휴가지에서 읽은 대통령의 독서 목록은 늘 화제가 됐다. 향후 정국 구상과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역대 정권에서도 주목받았다. 2017년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책 ‘명견만리(明見萬里)’를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소개 직후 판매량이 2배 급증하는 등 인기 열풍이 불었다. 2018년 여름 휴가에 소설가 한강이 쓴 ‘소년이 온다’, 소설가 김성동이 펴낸 장편소설 ‘국수(國手)’, 진천규 통일전문 기자의 방북취재기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 3권을 읽었다. 그러나 올해 여름의 경우 폭우로 여름 휴가가 취소되면서 문 대통령은 휴가철 탐독 도서를 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9월은 독서의 달이다. 해마다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읽은 책을 소개하곤 했다”며 “대통령에게도 책을 읽을 기회가 되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출판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그래서 독서의 달을 맞아 제가 올려놓은 책 가운데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소개할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재천·장하준 교수 등이 펴낸 ‘코로나 사피엔스’와 제러미 리프킨의 ‘오늘부터의 세계’ 책 두 권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비슷한 성격의 책”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다양한 분야의 대한민국의 석학들과 세계의 석학들에게 묻고 답한 내용을 정리한 책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개인이나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가능해 볼 수 있다”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김준혁 저자가 펴낸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권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조대왕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고, 당대의 역사를 보는 재미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조대왕이 금난전권을 혁파해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김상용 저자의 ‘홍범도 평전’을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의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평전”이라며 “마침 올해가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장군의 유해봉환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와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독립군들의 초창기 항일무장독립투쟁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



무주군, 관광 해설자료집 발간

무주군이 지역 관광지를 테마별로 소개하고 무주의 매력과 명소를 한 권에 담은 종합관광 홍보책자인 ‘무주군 관광 해설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자는 관광과 관련된 최신 사진과 정보, 무주 관광명소를 새롭게 편집했으며, 18cm(가로)×25.5cm(세로) 크기의 약 150쪽 분량으로 200부를 제작했다. 이 해설집은 지난 3월부터 관광 전문 해설사 10여명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현장 경험을 토대로 관광자원 자료조사, 개인별 축적된 관광 정보 등을 수집해 모아 엮었다. 관광해설 자료집을 통해 색다른 무주의 체험과 관광객 유치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세계속의 한식... K-FOOD 온라인 요리 경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위해
무관중으로 치러 · 온라인 생중계
참가자들에게 전북 농특산물 담긴
블랙박스 제공 · 우수 6팀 선정



국제한식조리학교가 1일 'K-FOOD 온라인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연 가운데 대회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제1회 지니포럼'의 연계행사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음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무관중으로 치러졌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1일 K-FOOD 온라인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제1회 지니포럼'의 연계행사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음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무관중으로 치러졌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본선에 진출한 12팀의 참가자들에게 임의의 전북 농·특산물이 담긴 블랙박스가 제공되고, 참가자들은 총 75분 동안 '세계속의 한식'이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창의적인 레시피를 선보였다.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6개 우수팀이 선정됐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박효남 대한민국의 요리명장, 이종임 한식요리연구가, 임복주 전주음식 명인, 민계홍 국제한식조리학교 학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대상에는 국제한식문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상금 150만원이 수여되고, 최우수상에는 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1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민계홍 학교장은 “음식을 알린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것과 같고, 나아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요소다”며, “한식에 대한 관심 고취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 음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한식조리경연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한식조리학교는 한식의 세계화,

국제적인 감각을 소유한 글로벌 한식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찬품, 궁중 반가 음식, 향토음식, 발효음식, 채식조리 등에 이르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한식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18일까지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아트 체인지업'
2일부터 16일까지 지원대상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아트 체인지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아트 체인지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예술 활동의 일상화에 대비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작품 발표와 향유자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과 단체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예술가, 문화예술 관련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전라북도 예술인과 예술단체이며, 2일부터 16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등 기존 재단 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재단은 참여예술인에게 창작, 비평, 조사·연구, 관객 개발 등 예술 소재 기반의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선정 후 재단에서는 저작권 관련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의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예술계가 특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장은성 기자

익산문화관광포럼 공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시민 발제자 모집

(재)익산문화관광포럼(대표이사 장성국)이 익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확보하고 이를 향후 정책 및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자 제2회 익산문화관광포럼 공감, '온라인 타운홀 미팅-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의 시민 발제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익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열린 토론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는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민 발의의 장을 마련

하고자 선착순 100명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모집·진행된다. 익산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신청은 네이버 폼(<http://naver.me/F8Rxe8ur>)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익산의 축제, 공연·전시, 관광, 교육, 시설, 생활문화, 기타 중 1가지 주제를 선정 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음성기록 또는 영상 업로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제안한다. 기록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재단 홈페이지 내 '익산문화관광포럼 공감' 페이지에 올라가게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